

2024 새해 이렇게

명현관 해남군수

기회발전특구 지정·고속철 연결 등 3대 과제 역점 추진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RE100 산업단지·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농수산물 생산기반구축 농어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로 더 큰 해남의 미래를 치를 키우겠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해남의 20년, 30년을 준비하는 장기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핵심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 프로젝트 사업인 ‘해남군 2030 프로젝트’로 서남권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양관광레저거점 조성, 고속철도(KTX) 연결 등 3대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해남군이 추진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은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165만㎡ 규모의 RE100 산업단지와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글로벌데이터 센터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끌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시작, 해남에 고속철도(KTX) 노선 개설은 명실상부 국토균형발전의 완성은 상징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고속철도(KTX) 노선 개설은 지난해 11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공론화되기 시작해 지역 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는 2026-2035년 적용되는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시기로, 군은 해남과 완도 노선을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여건 개선 시 제주노선 2단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명 군수는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당장 성과보다 미래세대와 해남발전의 장기비전을 위해 준비하는 계획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발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군민, 향우 등이 한마음 한

뜻으로 의지를 모으고 해남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올해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4억원 증가한 8825억원을 편성해 주력사업인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2%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일 경제와 복지, 기초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 4174억원을 확보하면서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사업, 친환경복합서비스사업,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자연재해 예방사업 등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농어업분야에서는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에 발맞춰 전국 최대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기반구축과 전국 최초 농업인 기숙사 건립, 김산업 진흥구역 조성, 수산 기자재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주력산업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소

득 증기를 도모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을 통한 특색있는 콘텐츠 확충과 함께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 해남위케이션 센터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도내 최대인 112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청년 공공임대주택건설, 작은학교 살리기 선진모델 구축 등 인구감소 대응 전략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해남형 ESG 경영 확산과 함께 교육재단이 지난해 출범하면서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과 장학사업의 강화, 군민 평생교육 확대도 역점 추진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일하는 군정, 신뢰받는 군수, 잘사는 군민의 꿈을 안고 달려온 2024년,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개신창래(開新創來)의 해로 만들겠다”며 “지금까지 군민과 함께 이룬 역대 최대의 긍정성적을 이어 더 큰 해남의 미래를 구성하고 대도약을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성 기자 dia@kwangju.co.kr

완도형 치유산업 확산 모색 국제세미나 열린다

16~17일 완도 해양치유센터

일본·대만 등 전문가 주제발표

완도군이 16~17일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완도형 치유산업 확산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건강의 섬 그리고 치유의 섬’을 주제로 해양치유와 치유농업, 산림치유를 연계한 완도형 치유산업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다.

세미나 첫 날 16일에는 와세다대학교 마사키 겐

원연구원이 ‘일본 치유산업 정책과 시사점’에 대해, 국립대만대학교 장춘연 교수가 ‘자연과 건강한 삶으로의 치유산업’, 네덜란드 와게닝대학교 엘리스 연구원이 ‘유럽 치유농업 추진 과정과 성공 사례’, 권영록 국립산림치유원장이 ‘완도의 산림치유 활용 방안’, 이수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과장이 ‘치유의 섬 완도, 미래 관광을 열다’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 토론은 김재수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 이사장을 좌장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 김창길 위원장,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이옥희 치유농업확산팀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연구센터 김충근 교수, 매일경제 신익수 기

자 등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국가별로 어떤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한다.

또 일본, 대만, 네덜란드에서 ‘치유’의 개념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와 치유산업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비교하며 완도형 해양치유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

국제세미나 참가자들은 최근 개관한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농업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 뒤 완도형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취약계층 LED 조명기기 보급 신청

내달 2일까지...가구당 5개 지원

영광군은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기기 보급사업(사진)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해줌으로써 전기요금 절감 등 에너지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 중 일반 조명(형광등, 백열

등)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으로 오는 2월 2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최대 5개씩(95만원 상당) 교체를 지원한다.

신청 제외 대상은 기존 LED 조명기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건물을 준공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서 접수에 관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S전략산업실 신재생에너지팀(061-350-5534)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w@kwangju.co.kr

신안군, 3년간 계약심사로 37억 절감

10일 처리 기한도 3~4일로 축소

신안군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예산 37억 4600만원을 절감했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 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신안군의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의 원가심

사와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450건 1473억원(공사 256건, 용역 98건, 물품 96건)의 심사를 통해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는 2022년도와 비교해 123%가 증

가한 것이다.

현재 계약심사는 규정상 10일 처리 기한을 두고 있지만 평균 3~4일로 축소해 각 부서의 신속 집행을 지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해 부실시공 예방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